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정광중¹⁾ · 오성배²⁾ · 황석규³⁾ · 고광명⁴⁾

A Direction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Jeong, Kwang-Joong¹⁾ · Oh, Seong-Bae²⁾ · Hwang, Suk-Kyu³⁾ · Ko, Kwang-Myong⁴⁾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세계시민의 역량을 지닐 수 있는 성찰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3곳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인데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된 교육을, 시민단체는 중복되고 일회성의 교육을 그리고 학교는 목표와 실천에 괴리가 존재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변화는 물론 외국인과 함께 상생하고 융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여 결혼이주여성과 정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양성화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지역사회에 맞는 독특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외국인근로자, 이주가정 자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하고 지속성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전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빠른 시일 안에 확대되어야 하며,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나가는 동시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혁적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다문화시민들에 의한 다문화교육이 진행되는 한국 최초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주요어 :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교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ed to crit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are attempting to build up the world-worn capacity of citizens by the reflectiv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e public sector will have to develop a program with the locals and foreigners. Private organizations will have to develop their uniqu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is program that target foreign workers, women migration and their children, students is important to the stable continuity. The school should be expand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as soon as possible for commom students. Teachers will have to increase an interest and understanding to multicultural ed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changing. University that targets the entire student must complete taking a step-by-step in multicultural education course and

* 이 연구는 2009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KRF-2009-B000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회과교육전공 교수, 교신저자(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ongkj@jeju.ac.kr

2)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ohsb@dau.ac.kr

3)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Special Researcher of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sukkyuhwang@jeju.ac.kr

4)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Special Researcher of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kkm0630@jeju.ac.kr

should be to develop and operate the trai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s.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should be the first city for educational reform in South Korea and make steady progress toward the asia center city.

Key words: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Public Sector, Private Organization, School

1. 서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0년 이래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외국인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응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교육의 도입도 이뤄지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다문화교육이란 개념은 보편적이고 단일하게만 설명되지 않아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교육은 모든 시민들이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Banks, 2009a: 74) 실천행위로 정의된다.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가 대상이 아니라 지역 정주민 모두에 해당하는 교육행위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온정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정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다문화교육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된 다문화교육, 민간단체는 책임성이 약하고 일회성의 다문화교육, 학교는 목표와 실천이 괴리된 상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다문화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제주지역이 지닌 다문화의 특성과 사회 환경에 맞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한국지

방정책연구소, 2010).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이며, 책임성 있으며, 세계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그리고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에서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도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제주의 다문화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이론적으로 다문화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의 비판적 시각을 정리하며, 셋째,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전개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며, 넷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절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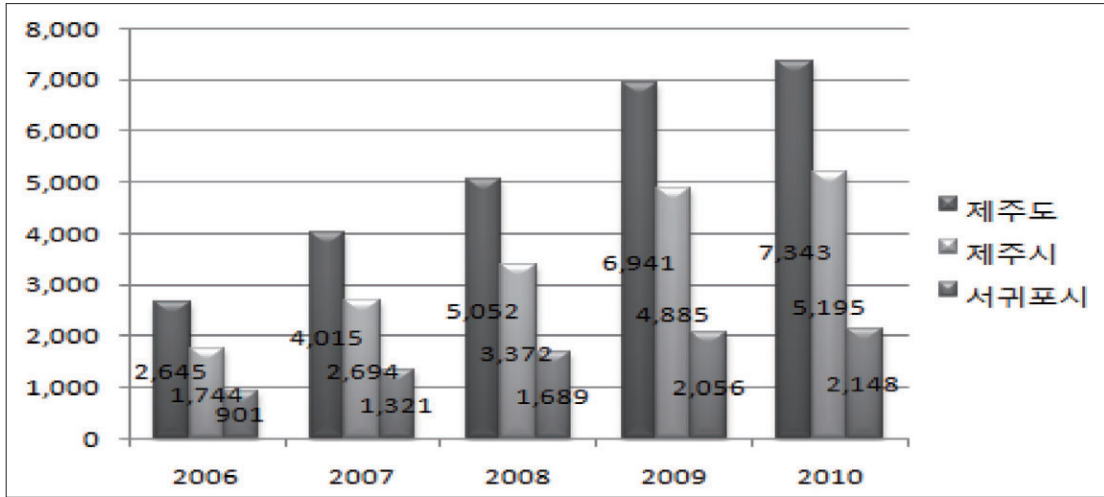
2. 제주의 다문화 현황

1) 제주 외국인 현황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지역 외국인은 2006년 2,645명, 2007년 4,015명, 2008년 5,052명, 2009년 6,941명 그리고 2010년 7,34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 증가비율은 5~34%이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3년에는 10,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제주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의 1.3%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시권에 5,195명(70.7%) 그리고 서귀포시권에 2,148명(29.3%)이 거주하여 2/3의 외국인은 제주시권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별로 보면 남성이 3,781명(51.5%) 그리고 여성이 3,562명(48.5%)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림 1> 연도별 도내 외국인 증가 추이

(단위: 명)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010년 4월 기준).

<표 1> 2010년 한국국적 취득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제결혼 가정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기타 외국인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2008년	5,052	3,982	1,710	904	532	836	336	297	39	734
2009년	6,941	5,351	2,240	1,100	796	1,215	410	344	66	1,180
2010년	7,343	5,502	2,563	1,164	857	918	551	445	106	1,29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010년 4월 기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 제주도내 외국인 중 한국국적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은 5,502명, 한국국적을 지닌 외국인은 551명이며, 국제결혼가정자녀는 1,29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90.1%이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9.9%에 그치고 있지만, 2008년 한국국적 취득자가 336명인데 반해, 2년 후인 2010년에는 551명으로 1.6배 상승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인 경우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있고,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을 지닌 부모의 자녀인 경우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지 않고 부모국적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주해 온 동기로 보면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 유

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인 경우 2008년 1,710명인 것에 비해 2010년 2,563명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비해 결혼이주자는 약 1.3배, 유학생인 경우는 1.1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의 중심은 국제결혼보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혼인귀화자는 2008년 297명에서 2010년 445명으로 1.3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 사유인 경우 2.7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는 회사원, 외국어 강사, 연예인 등의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수가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수를 보면 2008년에 734명에서 2009년 1,180명으로 1.6배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1,290명으로 전년 대비 1.1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증가 속도는 둔감해지고 있다.¹⁾

2)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 국제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01명에서 2009년 1,444명 그리고 2010년 1,609명으로 매해 200명 정도의 국제결혼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순이며, 이들 3개 국가의 국제결혼 이민자의 수는 1,369명으로 전체 국제결혼이민자의 85%를 차지함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은 여성들이다. 그러나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과 미국과의 국제결혼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몽골과 태국의 국제결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타 국가와의 국제결혼의 경우 2010년에 비추어 보면 캄보디아 41명, 우즈베키스탄 15명, 네팔 12명, 캐나다 7명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결혼이 성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껏 동남아시아 국가, 미국, 일본과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루던 제주지역은 점차 남부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그리고 캐나다 및 유럽국가와의 국제결혼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외국인근로자 현황

<표 3>은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1,710명에서, 2009년 2,240명 그리고 2010년 2,563명으로 매해 300명 이상의 증가로 인해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보다도 약 100명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어업부문에 절반 이상 종사하며, 농축산업, 예술인, 제조업, 건설업, 외국어 강사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황석규, 2009: 379). 외국인근로자 역시 국제결혼이민자처럼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2010년 경향에서는 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에 포함된 스리랑카(38명), 우즈베키스탄(32명) 등 남부와 중앙아시아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의 새로운 변화는 영어 관련 외국인 유입이 두드러져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에 포함된 캐나다(104명), 영국(27명), 호주(11명), 뉴질랜드(10명)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증가는 1차 산업과 교육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010년의 외국인 유입은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외국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한

<표 2>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태국	기타
2008	1,201	606	207	113	75	19	9	8	6	158
2009	1,444	686	360	183	72	17	6	10	10	100
2010	1,609	718	423	228	69	17	9	11	13	12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010년 4월 기준).

<표 3> 외국인 근로자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태국	기타
2008	1,710	889	234	183	83	75	42	37	16	151
2009	2,240	881	185	186	163	184	77	164	2	398
2010	2,563	897	379	290	168	166	74	176	2	41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출입국사무소(2010년 4월 기준).

층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처럼 동남아 국가, 일본, 미국의 인구 유입을 넘어 남부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캐나다 및 유럽, 더 나아가 남아공화국에서의 폭 넓은 인구 유입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표 4>의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자녀²⁾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가장 많은 수는 초등학교에 등교하고 있고, 매해 4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적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수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9명이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주시민이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과 단일민족 성격인 선택적 차별주의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결핍에 의한 것으로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기 때문이다(황석규, 2009: 379). 중학교인 경우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몇 년 후에는 증가폭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의 입학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고등학교로의 진학포기 및 중도 탈락을 예상하면 중학교보다는 증가세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한국이 외국인근로자 자녀 동반불허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래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입학생 수가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고, 새터민 학생의

수도 아주 적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2007년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진학자 수는 45~70명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 이내에 학교 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교 진학 증가세도 미세하지만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0년 제주지역의 학교급별 상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생 수와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다문화사회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1) 다문화사회

이주는 취업, 동경, 교육 등의 끌림(pull) 현상에 의해 국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문화사회는 주로 국가, 민족, 인종 간 이주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그 개념이 지닌 의미는 사뭇 복잡하다. 다문화사회는 일련의 국가에 다양한 국민, 민족, 인종이 유입되는 이주 현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이래 지속되는 민족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21세기의 다양한 국가, 민족, 인종사회의 통합을 제시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개념에 있어서도 미주에 속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유럽

<표 4> 학교급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A	B	C	합계	A	B	C	합계	A	B	C	합계	A	B	C	합계	A	B	C	합계	
2007	13	1	0	14	108	0	4	112	14	0	2	16	3	0	0	3	138	1	6	7	145
2008	17	2	0	19	152	2	4	158	20	0	3	23	7	0	0	7	190	6	7	13	203
2009	25	3	0	28	186	7	4	197	29	0	4	33	12	0	2	14	252	10	10	12	272
2010	19	0	0	19	227	10	5	242	34	0	3	37	15	1	4	20	295	11	12	12	318
증감	-6	-3	0	-9	+41	+3	+1	+45	+5	0	-1	+4	+3	+1	+2	+6	+43	+1	+2	0	+46

주) A: 국제결혼 자녀, B: 외국인 근로자 자녀, C: 새터민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 4. 1.).

에 속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상호문화사회(intercultural society)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백인 이주민들로 근대국가를 형성한 캐나다와 미국은 백인중심적 다문화정책과 교육을 실천하여 왔고, 유럽은 역사적으로 동질 민족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민족 중심적 다문화정책과 교육을 실천하여 왔다. 하지만 Banks(2009a, 16)가 지적한대로 한 민족과 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은 앞으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국가의 중요한 목적은 민족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협상하고, 토론하며,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경수(2011, 753)는 프랑스가 민족적·인종적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민족적 통합주의 정책에서 상호문화(intercultural) 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에 속하는 일본은 미주와 유럽과는 상이하게 공생사회(共生社會)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다문화정책과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뉴커머(new comer)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입관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의 부족한 노동인력을 외국인근로자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 법을 근거로 재외 일본인 2세와 3세에게는 교육, 취업, 정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비일본계 외국인들에게는 엄격하게 취업 및 체류기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전재호, 2007: 209). 일본의 공생정책은 일본인과 비일본인을 엄격하게 구분한 강력한 민족적 통합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국제결혼은 한국을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시작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시기가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가정과 그 자녀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입과 동시에 이들의 사회적응을 빠르게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³⁾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첫째, 중앙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에 대한 자체적 고민은 하지 않았다. 둘째, 제주지역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개발과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외국인과의 상생과 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셋째,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지역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세계인들과 함께 하며, 질 높은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⁴⁾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지역에서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며, 질 높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문화정책과 교육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21세기 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려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목표에 상응하는 다문화정책과 교육목표를 세계적 수준에서 재구성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다문화교육

세계적으로 볼 때 캐나다는 1971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공식화하면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선진 국가들도 자신들에 처해진 사회의 다양성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점진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다문화교육을 외국인(특히 흑인) 중심적이고, 국가와 민족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게 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Banks, 2009a: 11-17). 이에 대해 개혁이론가들은 다문화교육을 새로운 시민교육이라 명명하면서 “학생들이 문화, 국가, 세계 일체성(identification) 간의 정교한 균형에 이르도록 해야 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지식생산자가 되도록 지원해주며, 한층 더 인간적인 국가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민 행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교사는 다문화 세계 사회에 사려 깊고, 배려하며, 성찰적인 시민이 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성찰적인 문화, 국가, 세계 일체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anks, 2009b: 4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한국은 단일민족이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교육적 이념을 강하게 제기하여 왔다. 문화민족주의적 구성들에 조용히 다가온 “다문화의 열풍”(김혜순, 2007: 1)은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난민 등에 대한 생존, 계급 및 인권침해 요인 등은 등한시되고, 이들을 위한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판 연구자들은 ‘문화보다는 생존에 맞추어야 하는 다문화주의’(오경석, 2007: 52-53), ‘관주도형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 70), ‘이주자간 계급 분화에 따른 차등적 권리 부여와 물신화된 다문화주의’(김현미, 2008: 70)라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황정미(2010: 93)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을 ‘다문화시민이 없는 다문화교육’이라 규정하면서 “다문화시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채로 다문화교육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교육은 단지 이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 곧 다문화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2006년부터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에 틀림없지만 “다문화교육 주체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불명료한 상태이며, 국내에 소개된 다문화교육 이론과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외국의 것으로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조영달 · 박윤경 · 성경희 · 이소연 · 박하나, 2010: 153).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국가 · 인종 · 민족적 차원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만을 담아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차이는 성별, 종교, 직업, 지역 등의 요인에 의해 더욱

큰 격차와 차별이 일어나게 된다. 다문화교육의 대상자는 이주민과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이며, 일반 학생들이 더욱 주된 교육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학생이 다수자 학생들의 주류적인 문화에 차별적인 위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서로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고자 하는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문화교육을 받아야 하는 핵심 대상은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소수자 학생이기 보다는 다수자 학생이나 소수자에게 편견을 지닌 다수자 집단의 사람들인 것이다”(김선미, 2009: 61).

결과적으로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소수집단이 주류 집단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동화, 적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지니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시민의 원리, 개념 및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복지 및 세계 시민 정체성을 증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교육상황을 성찰적 · 변혁적으로 구성해야만 한다.

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서구에서는 40년 전부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실천적 관심을 가져왔지만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다문화교육 과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여지도 없이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왔다.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이다.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출산에 대한 사회통합의 시급성으로 인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민간단체는 이주민의 삶의 현장을 인식하면서 사회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파악하게 되면서 차별과 편견 그리고 복지적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전문가 양성에 관한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주민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사회통합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단체들 역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차별, 인권, 복지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강사양성, 교사 국제이해교육, 멘토링, 상호문화이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이중 언어교육, 다문화 강사양성교육, 교사 및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과 인권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조영달 외(2010, 178)는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주된 목표이자 내용인 다양성 및 다원성에 대한 태도, 긍정적 정체성, 사회정의 및 인권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는다. (...) 둘째, 학교특성에 따라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정책연구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한국사회 적응 및 동화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공되고 있다. (...) 넷째,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은 정규 교육과정보다 비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일회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40% 가량을 차지하여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체계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한국의 연구자들은 Banks의 변혁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관점(2009b, 69-72)을 기초로 하고 있다(김용신, 2009a: 박선웅 · 이민경 · 구정화 · 박길자, 2010). 특히 김용신(2009b, 21-22)은 Banks와 Newman(1973)의 논의를 토대로 4차원의 다문화 수업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차원의 동화주의 수업 방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 문화의 우월성과 편재성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소수종족 문화집단 소속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인한다. (...) 2차원의 융합주의 수업 방법은 (...) 표면적으로 이해 중심 다원주의가 표방되고 있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실은 우월적인 다수자의 문화에 이주 소수집단들이 동화되는 형태를 띤다. (...) 3차원의 다문화주의 수업 방법은 (...) 각각의 문화를 지닌 개인들의 능동적인 자민족주의를 다문화 수업과정에 도입하여 국가사회의 전체적인 통합을 모색한다. (...) 현실적으로는 정책적 차원의 문화다원주의가 실행되어 기존의 질서체계의 중심의 국가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능동성은 제한을 받게 된다. (...) 4차원의 문화민주주의는 적극 다문화주의와 세계주의를 표방한다. (...) 민주주의의 운영 과정에 개인들이 시민 자격으로 적극 참여하여 국가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학습자들은 수업의 개별 주체 자격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다. 소수와 다수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이고 구조적인 편견과 차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행동과 참여를 중시하는 개혁적인 다문화 수업이 문화민주주의 수업 방법이다.” 김용신(2009b, 22-23)은 유연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1·2차원의 동화주의와 융합주의 수업 방법을 고려하되, 다문화심도가 깊어진 특정 지역이나 학교, 학급에서는 3·4차원의 문화다원주의와 문화민주주의 수업방법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비판적으로 현 시점부터 3·4차원의 개방적인 수업방법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많다(김선미, 2009: 박선웅 외, 2010: 황정미, 2010: 이경수, 2011). 또한 교사, 공무원, 강사양성의 다문화교육은 보다 체험과 활동위주의 교수학습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강의위주의 전문인력 다문화교육은 시간 채우기식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체험하고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며 교육대상자의 가치체계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체험활동 교수학습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교육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4.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9년 외국인 정착지원 업무 계획에서 추진목표를 (1)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실현과 (2)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포용분위기 확산으로 질 높은 사회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

1) 공공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 공공기관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43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2007년 8월 이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의 수는 18개로 전체의 42%에 해당되며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면, 첫째, 공공기관 다문화교육 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되고 있다. 둘째, 주민자치

<표 5> 공공기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시	읍면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명칭
제주시	애월읍	• 이주민 여성 컴퓨터교실, 다문화 이해교실 • 이주여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노래교실
	한경면	•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천연염색, 옹기 만들기, 김치체험) 및 사랑의 나눔 교실 • 다문화가족 도내 명소 1일 탐방
	일도2동	• 한국어교실 초·중급반 운영
	삼도1동	•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용담2동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화북동	• 다문화 한글교실
	삼양동	• 이민여성 한국어 교실
	오라동	• 다문화 한글교실
서귀포시	대정읍	•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실, 인터넷 활용 교실, 우리문화 체험 교실, 한국생활 글짓기, 사랑방, 역사문화탐방교실 • 결혼이민자 비누 만들기, 김치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교실 • 결혼이민자 국적별 만남·배움의 장 • 국가별 맞춤형 사이버 한국어 강좌
	성산읍	• 이주민 한글 강좌
	안덕면	• 이주민 여성 한글교실, 한국 전통 음식 교실 • 이민여성 한국 문화 강좌 및 노래 배우기, 송편 만들기, 김치 만들기, 컴퓨터 강좌
	표선면	• 결혼이민자 한글 교실,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체험 교실, 김치 담그기 교실, 컴퓨터 교실
	중문동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옹기체험, 박물관 현장 문화체험 • 결혼이민자 천연염색 체험, 한글 학당
	중앙동	• 결혼이민자 주부모임
	효돈동	• 거주 외국인 김치 만들기 체험
	영천동	• 이주민에 대한 열린 사랑 열린 대화방 운영
	대천동	• 다문화가정 김치 담그기 교실
	송당동	• 이주 한국인 한글학당(초급·중급)

자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부 자료에 의해 작성.

센터 대부분은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의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의 2/3는 제주시에 거주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면 서귀포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전 행정구역상으로 파악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는 농어촌지역인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고 북제주군보다는 남제주군지역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정읍, 안덕면, 중문동, 표선면의 순으로 더 많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넷째,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령 대정읍의 국가별 맞춤형 사이버 한국어 강좌와 결혼이민자 국적별 만남·배움의 장, 영천동의 이주민에 대한 열린 사랑 열린 대화방, 중앙동의 결혼이민자 주부모임 그리고 한경면의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교실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대정읍의 결혼이민자 국적별 만남·배움의 장은 베트남과 중국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제주 생활양식 강좌 및 맞춤 상담과 더불어 국적별 이민자 간에 제주생활의 애로사항 등을 토론했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천동, 중앙동 그리고 한경면의 프로그램은 이주민의 생활상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하는 사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주 여성의 제주사회 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그리고 사회생활 적응 교육에 주목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2) 민간단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2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표 6)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이행하는 다문화교육으로 외국인을 복지적 차원에서 담당하는 민간단체

(표 7)이다.

<표 6>에서 살펴보면, 전문적 다문화교육을 이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공통점과 상이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통점에서는 첫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역시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그리고 사회생활 적응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기관과 다르게 서귀포시지역보다는 제주지역에서 대부분 다문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이점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에 대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 정주민과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취업과 창업 그리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주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제주이주민센터는 기독교적 차원에서 설립되어 제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인 전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제주이주민센터는 2002년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로부터 출발하여 2003년 (사)외국인평화공동체의 비영리단체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에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제주이주민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이주민센터지원사업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제주이주민센터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이주민센터의 초기 목적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라는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보호사업을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표 6〉 전문직 민간단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시	소속	주요 프로그램 내용
제 주	제주이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 한국어교육(기초, 초·중·고급반),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직업교육, 정서지원, 결혼이민자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및 상담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아동 양육 • 이주민센터 지원 사업 :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주 노동자 상담활동,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 연계 • 제주다민족축제 개최
	제주외국인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아버지학교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식문화체험 및 예절교육
	국제가정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한국어(기초, 초급, 중급, 자격증대비반), 한국문화이해교육(요리, 편지쓰기, 동화 구연, 민요, 풍물, 설장구), 컴퓨터교실, 가요교실, 예쁜 글씨·공예교실 • 자녀교육 프로그램 : 한자교실, 영어교실, 미술치료, 색종이 접기 특강, 한자로 배우는 재미있는 일본어교실, 학습코칭 • 기타 교육 프로그램 : 지역주민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국제결혼대상자 사전교육, 전통고추장 담그기, 지역문화체험, 찾아가는 요리교실
	제주다문화가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육과정 : 한국어기초교육, 한국어능력시험반, 컴퓨터자격증대비반, 국제결혼행복캠프, 지역민외국어교육 • 문화예술교육 : 다문화이해, 제주문화체험, 신나는 난타, 록밴드 합창음악, 사진 강좌 • 창업·취업교육 : 천연비누 만들기, 봉제교실, 이미용 교실, 자동차운전면허강좌
	국제가족제주특별자치도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한국문화 및 정보화교육 • 이민여성 전통문화 체험
서귀포	서귀포 이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교육 : 한국어 및 요리교실, 결혼이민자 문화교실, 다문화사회의 이해 • 기타 교육 : 범죄예방교실, 모의선거체험교실, 운전면허취득교실

자료 : 각 민간단체 내부 자료에 의해 작성.

둘째, 제주외국인쉼터는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회의 부설기관으로 필리핀 이주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이주가정에 접목하여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유일하게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을 이행하고 있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참가자의 참여도가 낮아 일회성에 머무르고 있고, 그 이유로서 다문화가정의 실제적인(경제적, 시간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교를 기반으로 한 국제가정문화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농촌지역 중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이

위치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또래에게 배우는 색종이 접기 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 일반가정자녀가 강사로서, 다문화가정자녀와 일반가정자녀가 함께하는 국적 초월과 동시대 또래 시각을 통해 함께 배우고 느끼며 토론하는 교육으로 의미가 있다.

넷째, 제주다문화가정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에 의한 자조모임이 확대되어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다문화가정의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다문화가정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다문화가정 스스로 상호협력하면서 교육, 상담, 의료, 기술, 법률, 경제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는 대개 외부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 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더불어 창업·취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섯째, 국제가족제주특별자치도연합은 2006년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마친 국제가족한국총연합의 제주지사로 설립되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이다.

여섯째, 서귀포이주민센터는 제주이주민센터와 연계되어 설립되었고, 서귀포시 유일한 외국인 전문 민간단체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우나,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전문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은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일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들이 직접 자조모임을 확대하여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더 나아가 사회적 및 취업까지 스스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종교단체와 연관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배경을 안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사회복지 민간단체들은 농촌지역에 위치하며 비교적 저소득층에 속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의 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교육의 목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다문화자녀 교육지원에 두고 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시 동부지역에 위치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제주 YWCA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제주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앙부에 위치하며 서귀포시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법무부가 지원하는 이주민 사

<표 7> 복지적 민간단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시	소속	주요 프로그램 내용
제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이주여성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 : 한글교실, 요리교실, 문화교실, 가족소풍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국제결혼이주여성 한국 문화교육 • 국제결혼가정 happy life 지원 사업 • 다문화 자녀 통합 방과 후 공부방 • 다문화 어울림 배움터
	제주 YWCA	• 결혼이주여성 행복 가꾸기 프로젝트
서귀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이해과정 • 특별한 며느리 제주도민 거듭나기 : 댄스동아리, 한국음식 만들기, 일상생활교육, 부부교육, 발마사지, 영화감상 •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사업(온누리 배움터) : 멘토링, 미술교육, 째즈댄스, 일상생활교육 • 다문화가정 취학 전 자녀 학습지원 사업(똑똑한 우리 아이 만들기) : 책임기, 놀이학습 프로그램

자료 : 각 사회복지단체 내부 자료에 의해 작성.



<그림 2> 제주주민센터의 미안마인과 친구되기



<그림 3> 서귀포주민센터 컴퓨터교실 운영

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특별한 며느리 제로도민 거듭나기 프로그램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민간단체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는 교육대상을 다문화가정에 두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며, 위탁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실정으로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3) 학교

학교 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

관은 일반학교와 제주대학교이다. 일반학교 중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1교), 거점학교(3교) 그리고 이해교육 학교(2교)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에는 2010년부터 '다문화이론과 실제'의 교과목을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 중이며,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 관리자, 일반교사 그리고 다문화 실무자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문화 정책연구학교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표 8)과 제주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표 9)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 다문화정책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제주시 백록초등학교(노형동 소재)가 처음으로 지정되어 2년간 시범 운영되었고, 2011년부터 2년 동안은 서부농촌지역인 수원초등학교가 지정되었다. 여기서는 백록초등학교에서 운영하였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백록초등학교는 위치적으로 신도심권을 형성하는 자리에 위치하여 중상위권 가정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로서, 2010년 3월 현재 외국인 자녀는 13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본과 미주 국가의 부모를 지닌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능력과 친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별로 없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상태이다.

다문화정책연구학교는 앞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는 달리 일반학생을 다문화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백록초등학교는 연구정책학교로 지정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 모두가 변화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족·인종·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큰 사람으로 성장하여 다가오는 미래 한국 사회의 귀중한 보배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백록초등학교, 2009: 1).

이를 기초로 연구학교 운영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3주제로 구분하여 첫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여건 조성, 둘째,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셋째, 일반학생과 다

<표 8> 백록초등학교의 연구 과제와 실천 내용

연구과제 1.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가. 다문화 교육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 다문화 이해 환경판 설치, 교육활동 결과물 게시 현관 : 연구학교 홍보관 조성 및 과제 안내 복도 : 학년별 수업 관련 주제별 다문화 이해 환경 조성 도서관 : 다문화 관련 도서 목록 작성, 도서 확충, 도서 대 료별 분류 정리,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상담실 및 전시실 조성 학교 홈페이지 활용
나. 다문화 사랑방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실 1칸을 이용 다문화실 구축
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연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연수 : 매월 2회 교사 자체 연수 학부모연수 : 매월 백록 다문화 소식지 발간, 학부모 연찬회 개최
연구과제 2.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가.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학습 시간을 이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나.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과정 분석을 근거로 교사용지도서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적용
다. 다문화가정 자녀·학부모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의 고리 맺기 : 포레, 상급생, 교사와의 멘토링 토요특새학교를 활용한 문화체험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활동 전개 : 방과 후 외국어 교육,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세계 문화 여행
연구과제 3. 더불어 함께하는 '혼디모아 세상' 만들기	
가. 학교 방송을 통한 다문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수, 금 아침 20분간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방송 시청, 다문화 체험 사례 발표, 교사 혼화 방송
나. 다문화 축제 '혼디모아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교육 홍보 : 유인물 및 현수막 다문화 이해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다문화 전시회 개최 다문화 축제 개최
다.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체험 다문화교육 체험 학습일 운영

자료 : 백록초등학교 운영계획서(2009)에 의해 작성.

<표 9>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1학년 대상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제1부 다문화주의와 지역사회	제2부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제3부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의 실제
1. 다문화주의와 지역사회	6.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지역화	10. 예술과 다문화교육
2.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권리	7. 외국과 제주의 다문화교육 현황 비교	11. 다문화사회의 정보활용교육
3. 다문화 사회와 시민성	8. 제주 다문화교육의 관점과 학생 이해	12. 다문화 수업전략과 지역 사회 지원 활용
4. 다문화사회에서의 역사 이해	9. 다문화주의와 교육과정 지역 화	13. 다문화수업 구성 및 비평
5. 다문화 생태주의와 지역 지식		

자료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2011, 출간 예정).

문화가정 자녀가 더불어 함께하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박선용·이민경·구정화·박길자(2010, 34)는 연구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다루면서

“한국의 다문화교육 목표 논의는 문화 간 차이 이해를 고려하면서 문화 간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까지 포괄하는 다문화 시민성 형성 관점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록초등학교도 다문화사

회의 도래를 대비하여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 시민으로 교육시키려는 목표아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록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정체성, 협력, 편견배제, 문화의 평등성을 지적하고 있다(백록초등학교, 2009: 8-9). 하지만 주류집단을 우선 인정하고 타문화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경계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음식, 노래, 인사말 알아보기, 다른 나라의 친구 초대하는 글쓰기 등의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다소간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일지라도 여기에는 협력과 편견배제 그리고 평등성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은 2010년부터 매해 2학기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예비 초등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자체 교재를 제작하여 강의 및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교재는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이며 교재 내용은 3부(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이론, 다문화교육 실천)로 설정함과 동시에 13주 교육에 따른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1 출간예정).

제주대학교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이행하고 있음은 고무적이지만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학년은 다문화교육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둘째, 단계별로 3학년까지 학년마다 다문화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이 필요하다. 셋째, 예비 초등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교육도 의미가 있지만 예비 중등교사 및 제주대학교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2000년부터 다문화교육 열풍이 불면서 다문화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인재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주에 외지인 유입의 역사는 오랜 세월을 거쳐 이뤄졌지만 제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었다. 몽골인, 유배인, 일본군, 피난민 등은 제주인에게 어떤 동의도 없이 유입되었다. 2001년 제주도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게 되었고, 이 시기와 맞물려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전의 외지인 유입 경위와는 완전히 다르게 제주인의 선택에 의한 외국인 유입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주의 외지인 유입 역사 속에 제주인은 피해 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이는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제주인은 한국인으로서 단일민족의 의식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한 선택적 차별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표 10).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제주인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여 세계화 시대의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주역이 되도록 설정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인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배타성과 선택적 차별주의를 문화 간 이해와 평화·인권을 함의한 문화민주주의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박선웅 외(2010, 40)는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이해하는 분석의 관점으로 문화 간 차이 이해와 문화 간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인의 배타성은 문화 간 차이 이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선택적 차별주의는 문화 간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민은 세계시민이어야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거대 프로젝트는 제주도민을 세계시민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를 밟아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제주도민이 지닌 배타성과 선택적 차별주의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화 간 이해

<표 10> 외지인에 대한 제주인 성격

성격	내용
배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질 문화집단을 강조함 • 이질적인 문화와의 차이를 드러냄 •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다른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이해 부족 • 자신 문화 정체성 형성을 강조함
선택적 차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성에 대한 기본 전제가 깔려 있음 • 문화집단 평가로 인한 문화집단 간 불평등 인식 • 소수문화집단은 고려하지 않음 • 문화 속에 담긴 계급성을 인식 • 문화 정체성 인식에서 지배와 피지배적 관계를 강조함 • 다양한 문화집단이 누려야 할 평등과 권리를 고려하지 못함

자료 : 박선웅 외(2010, 40)를 참고하여 작성.

와 문화 간 평등의 다문화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질 문화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문화 정체성만을 고집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질적인 문화를 배제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은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간 불평등의 인식 하에 문화의 지배와 피지배적 관계를 강조하고 소수집단이 누려야 할 평등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의식 역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출발한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 안보를 제외한 자율성을 이양 받게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자율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한국 최초의 다문화교육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첫째,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수도 미세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앞으로 사회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둘째, 외국인 중심의 다문화교육에서 일반시민 중심으로의 다문화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민의 의식 변화를 주도하는 다문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중복성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특

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며, 전체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학교가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학생 그리고 일반시민의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기관 내에는 이주가정 자녀의 일반정규학교 적응을 위한 일시적 교육을 담당하고, 전반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부서를 둘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주민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 이해 강사와 평화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전체 일반 정규학교(초중고)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확대해야만 한다. 제주대학교 역시 전 학년에 다문화교육을 단계적 문화 간 이해교육과 문화 간 평등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정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인터넷, 요가, 분재, 서예, 미술, 난타, 댄스, 중국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

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 지역 정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희박하고, 지역 정주민들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큰 의미를 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 정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 정주민들에게도 결혼이주여성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가령 중국어 교실과 같은 몇몇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이 강사로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 정주민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중복성을 떨 수밖에 없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제주시 혹은 서귀포시 중심으로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인해 프로그램은 중복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편의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주민자치센터의 지속적 왕래를 통해 지역 정주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높일 수 있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 정주민들을 위해서 매해 2번 이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과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정주민들에게 외국인과 함께 상생하고 융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민간단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민간단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외국인(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대상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로 구분된다. 모든 민간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여 공공기관의 위탁 및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중복성, 교통신의 접근성, 실무자의 부족, 프로그램의 일회성, 찾아가는 방문교육보다는 집합교육에 치중함은 물론, 교육대상자의

확보 등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결국 민간단체들은 지역사회에 맞는 독특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외국인근로자, 이주가정 자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이 다문화교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각각의 단체는 자신들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일상생활에 적응시키는 교육보다는 경제적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교육과 제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설정해야 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들에 의해 설립된 제주다문화가정센터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권장해야 하며, 결혼이주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그리고 유학생들의 권익, 건강 보호, 교육, 상담을 필요시에 접근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방식과 찾아가는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만 한다. 동시대 외국인근로자들이 제주지역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가감 없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보다 더욱 개혁적이어야 한다. 결국 일반가정 자녀와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시대 아동들이 서로 다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그림 4> 이주가정자녀의 체험교실



<그림 5> 제6회 제주다민족축제

과정에서 동등한 세계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중 혹은 다중적 언어를 서로의 경험을 통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습득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단체는 일반 정주민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불평등 교육의 일정량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정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평화인권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제주의국인센터가 진행했던 아버지학교처럼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혹은 결혼예정자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주시주민센터가 주관하는 제주다민족축제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활성화해야만 한다. 여러 읍면

동에서 시행하는 일회성 다문화축제를 정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일 년에 한번 행하는 제주다민족축제로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시 구도심권에서 세계의 날에 즈음하여 열리는 제주다민족축제는 6 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매해 외국인 참가자와 제주도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민족축제를 제주국제자유도시 축제로 개편·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3)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책연구학교, 거점학교, 이해교육학교를 지정하여 다문화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에 의한 형식적이고 하향적 다문화교육을 일반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연구학교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게 되면 첫째, 문화간 이해 교육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고, 문화간 불평등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둘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비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김용신의 수업방법에 의거해 분석하면 1·2차 수업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3·4차 수업방법의 도입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연구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교육은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식 교육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일반 정규학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정규과정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와 연계하여 다문화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차이를 인식해야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자체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연수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사연수나 관리자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연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이 진행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수업방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문화 간 이해와 문화 간 불평등 및 인권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스며들어야 하며, 동화주의와 융합주의적 수업방법이 아닌 다문화주의와 문화민주주의 수업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교실 내에서 표면적으로 이해시키려는 수업방식도 필요하지만 이 보다 다양성을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개방적 수업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제주대학교는 예비 초등교사 역량 강화로 1학년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교과목을 확대하여 전체 일반대학생이 21세기에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다문화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인재 역시 양성하여 전문가의 부재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유학생들과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그들을 국제자유도시의 진정한 일꾼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6. 결 론

2000년대 이래 제주도에 외국인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와 연동하여 2001년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며 많은 자율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게 되었다. 초기 외국인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유입되다가 점차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그들의 자녀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서서히 높아지게 되었고,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게 되었다.

대상별로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농촌지역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의 중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는데 반해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외국인의 사회적응과 더불어 생존과 인권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학교는 일반학생의 세계시민과 전문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용에는 다문화시민이 없는 다문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일반 정주민과 분리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책임성 없고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목표와 실천에 괴리가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다문화교육은 21~22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미래의 교육이다. 외국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과 빠른 시일 안에 상생과 융합으로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할 때 사회갈등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다문화교육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세계시민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혁적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이며, 책임성이 강한 세계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전개되어야만 한다.

더불어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교육프로그램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세계시민의 역량을 지닐 수 있는 성찰적 교육 프로그램은

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외국인과 함께 상생하고 융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여 결혼이주여성 과 정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양성화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지역사회에 맞는 독특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외국인근로자, 이주가정 자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성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전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빠른 시일 안에 확대·개편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나가면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혁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 대학에서도 전체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을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운영되도록 개선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다문화시민들에 의한 다문화교육이 진행되는 한국 최초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주

- 1)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데 주요한 점은 제주지역이 국제결혼의 흡입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결혼이민자의 결혼 통로, 체류요건 등 신분상의 불안정, 경제적 상황, 한국어 구사 능력과 교육, 가족 폭력 및 가족 간의 갈등, 육아 및 건강(김정우, 2010: 174-176), 결혼의 종교화, 결혼의 자본화(황석규, 2010: 220-223)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표현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 3)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을 영구 거주자로만 제한한다면 과연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족, 문화, 인종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이를 통합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게 된다면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이념과 정책을 지녀야만 할 것이다(윤인진, 2010: 9).
- 4) 미주지역에서는 다문화사회, 유럽지역에서는 상호문화사회, 일본에서는 공생사회라고 명명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범문화사회(Transcultural society)로 명명하려는 시도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황석규, 2009: 392-393).

■ 참고문헌

김선미, 2009, “한국의 다문화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09 인천교육국제심포지움, 아시아의 다문화교육과 글로벌 리더쉽, 55-62.

김용신, 2009a, 다문화교육론서설, 경기. 이담.

김용신, 2009b,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지향과 실행 전략”, 사회과교육, 48(1), 13-25.

김정우, 2010,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다문화교육”,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 교육 연구원, 2010년도 초·중등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173-180.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57-80.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7, 57-78.

김혜순, 2007, “서론. 다인종·다민족화와 다문화논란”,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07-7, 1-37.


박선웅·이민경·구정화·박길자, 2010,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분석”, 시민교육연구, 42(2), 29-60.

백목초등학교, 2009,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삶 가꾸기: 교육 과학기술부 요청 정책연구학교 운영계획서.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22-56.

윤인진, 2010,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 쟁점과 전망”, 국토 342, 6-11.

이경수, 2011, “프랑스 다문화교육 정책 무엇이 강점

- 인가”,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5집, 751-776.
- 전재호, 2007, “‘이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외국인 정책’ 변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과 국제정치, 23(3), 191-223.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1 출간예정,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학지사.
- 조영달 · 박윤경 · 성경희 · 이소연 · 박하나, 2010, “학교 다문화교육의 실태 분석”, 시민교육연구 42(1), 151-184.
- 한국지방정책연구소, 2010,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황석규, 2009,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과 미래”, 탐라문화, 35, 371-404.
- 황석규, 2010, “제주 다문화 현황과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 제주학연구자모임, 제주학과 만남, 아트 21, 207-235.
- 황정미, 2010,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담론 201, 13(2), 93-123.
- Banks, J. A., 2009a,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김용신 · 김형기 역, 다문화시민교육론, 교육과학사.
- Banks, J. A., 2009b,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모경환 · 최충옥 · 김명정 · 임정수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 Newman, W., 1973, A Study of Minority Groups and Social Theory. N.Y.: Harper & Row. 

투고일 2011. 05. 12
수정일 2011. 05. 27
확정일 2011. 06. 09

